

# 대한상의 브리프

news1 장은지 기자



제137호 2020년 12월 7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 위기에 빠져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정치부 전문 기자의 취재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청년 스타트업이 국회에 바란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 부동산 문제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현안에 가려져 경제 민생 입법은 여의도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우리나라에는 13개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키워갈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낮지만 하다.





청년들이 창업한 혁신 스타트업들은 기존 법들이 쳐 놓은 과잉규제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뒤떨어진 진입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샌드박스가 희망이 돼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신박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4년까지 신사업·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유예해주고 그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샌드박스로 겨우 임시면허를 얻었지만 2+2년인 4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것이다. 규제장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를 막고 이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뛰어든 청년 기업가들의 무릎을 꺾고 있다.



### [ 스타트업 입법과제 리스트 ]

과제명	관련 법	발의 여부
 복지위 비대면 진료·약 배송 공유주방 법제화	의료법, 약사법 등 식품위생법	미발의 발의(김성주 의원)
 정무위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금융혁신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발의(김병욱 의원) 발의(윤관석 의원)
 환노위 가사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가사근로자법 대기환경보전법	발의(정부) 발의(안호영 의원)
 국토위 드론 비행구역 확대 공유주거 '코리빙' 법제화	항공안전법 등 주택법	발의(김승원 의원) 미발의

## 복지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식산업에서 딜리버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유주방 사업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공유주방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마련한 ‘공유주방 법안’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최근에 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코로나로 인한 공유주방의 변화 ]



※ 출처 : 조선일보

공유주방 업체인 ‘위륙’ 1곳에서만 음식점 120여 개사를 창업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식품위생법의 개념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유주방은 이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업이다. 미국에선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식음료 분야에 특화된 공유주방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유니온키친에서 창업을 준비한 팀 가운데 300개 이상이 식당을 열었다.

문제는 국내에는 그동안 공유주방 관련 법안이 없어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유럽과 달리 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맞는 공간과 시설을 갖춰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식품접객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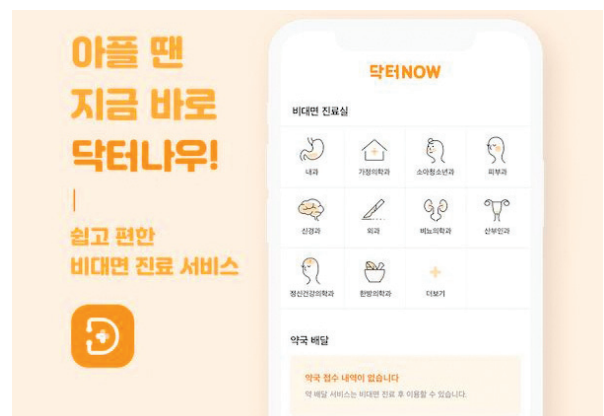
무엇보다 하나의 공간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행히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하위 법령 개정 등이 후행되어야 불법 딱지를 떼어낼 수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가이드’는 최근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닥터가이드의 장지호 대표(24세)는 한양대 의대 재학 중인 청년 기업인이다. 다행히 최근 복지부가 사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려주면서 배달 약국은 사업을 재개하지만, 젊은 대표는 이번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 [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 ]



※ 출처 : 히트뉴스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80만 건 이상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도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특히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 기존 기득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헬스케어 분야의 진입장벽은 ‘철옹성’과 같다는 비판이다.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막연한 불안 대신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해 풀어줄 부분은 풀어줘야 비대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배송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온라인 복약지도나 의약품 배송원제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 정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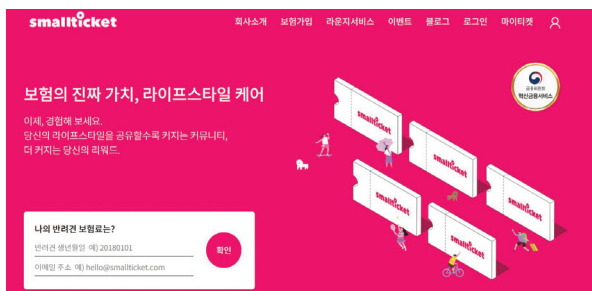
혁신적인 기술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금융 분야도 규제 벽이 견고하긴 마찬가지다.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인들은 120건에 달하는 금융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금융혁신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샌드박스 허용으로 그나마 잠시 숨통이 트였지만 지난해 4월 첫 승인을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임시 면허기간이 끝난 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같은 사업모델이라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 [ 혁신금융 서비스 '스몰티켓' ]



※ 출처 : 스몰티켓 홈페이지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법안도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핀테크'가 '빅테크'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금 요건이라는 진입장벽과 포지티브 방식의 낡은 법제도로 산업 성장을 누르고 있다.

전금법이 통과되면 로그인 한 번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환노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가사도우미를 직고용할 수 있는 가사근로법(고용노동부 발의)은 무관심 속에 3대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플랫폼 가운데 대표적 업체인 '대리주부' 앱의 경우 누적 이용 고객이 150만 명, 2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채용 계약이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 근로가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배제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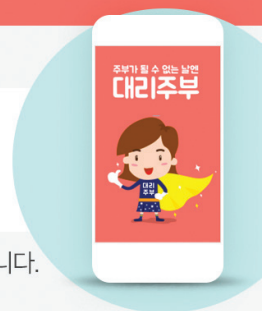
## [ 가사도우미 플랫폼 '대리주부' ]

대리주부는 실시간 일손찾기 서비스입니다.

웹/앱으로 간편하게!

- 가사
- 음식
- 이사
- 전문클리닝
- 산후조리
-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일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조선일보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간 1만여 명의 여성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환노위에 정부,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 국토위

해외에서 각광받는 ‘공유주거(Co-Living)’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도심의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에선 증가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숙사나 원룸, 일반 주택으로 마구잡이 분류하는 실정이다.

개인 공간은 1인실로 전용면적을 최소화하는 대신, 주방이나 거실 등 공유 공간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엠지알비(MGRV)가 1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mangrove)’ 1호점을 서울 종로에 열었다.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 공유 공간과 1인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프라이버시를 높이는 한편 커뮤니티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을 고려해 설계했다.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1인 가구나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공유주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이 21대 국회서 발의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 맺음말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항공안전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고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수 있는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다.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패러다임 변화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기존의 제도와 규칙들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대전환의 시기가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법안들을 국회가 각 상임위에서 진지하고 신속하게 논의하는 일은 이 시대의 입법기관에 주어진 소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 외면으로 사라지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수많은 혁신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이제는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 20일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단 오찬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너무 크다”며 “상임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상임위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의 여야 국회 논의 구조가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 현안 갈등에 매몰돼 실제 중요 법안들을 심사하는 상임위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절실한 입법이라고 해도 여야 원내 전략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12월 7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sup>(E)</sup>	IMF		OECD	
			2020 <sup>(P)</sup>	2021 <sup>(P)</sup>	2020 <sup>(P)</sup>	2021 <sup>(P)</sup>
한국	2.7	2.0	-1.9	2.9	-1.1	2.8
세계	3.6	2.9	-4.4	5.2	-4.2	4.2
미국	2.9	2.3	-4.3	3.1	-3.7	3.2
중국	6.6	6.1	0.9	8.2	1.8	8.0
일본	0.8	0.7	-5.3	2.3	-5.3	2.3
EU	1.9	1.2	-8.3	5.2	-7.5	3.6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99	1,187	1,179	1,145	1,117
원/엔(100엔)	1,009	996	996	1,122	1,120	1,116	1,088	1,069
원/위안	167.5	166.4	166.4	170.9	171.1	173.0	170.5	169.1
원/유로	1,276	1,299	1,299	1,373	1,403	1,391	1,348	1,321
유가(Dubai)	53.2	69.7	63.5	43.3	44.0	41.5	40.7	43.4

##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2.6	1.6	0.6	-1.5	-3.4	3.4	-2.7	-
소매판매	1.9	4.3	2.4	0.5	0.3	4.3	-0.2	-
설비투자	14.4	-3.6	-6.2	8.1	-1.6	16.8	-1.0	-
수출	15.8	5.4	-10.4	-7.1	-10.3	7.3	-3.8	4.0
수입	17.8	11.9	-6.0	-11.6	-15.8	1.6	-5.6	-2.1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